

The Restoration of Publicness and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 Jinrihoe in the New Normal Era

Yeongjoo Kim^{*}

Daej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restore the publicness of religion in the New Normal era.

CONTENTS Some clergy's deviant behaviors and the undesirable appearance of dealing with the Pandemic have raised the issue of the loss of the publicness of religion.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premised to restore the publicness of religion. Closed religion is a self-inflicted result of religion. This is because in the digital world where all information is open and shared, the deviation of a certain religion and its priests caused the loss of trust on religion. It seems clear that there is a need for time to agonize over how to restore trust and take responsibility.

RESULTS The digital world places more importance on trust and responsibility. The same is true of religion in the digital world. In order for religion trapped in a wall of distrust to break it down and restore publicness, it is essential for all religious people, including priests to have a responsible attitude toward restoring trust based on the golden rule of "Do good to others."

KEY WORDS New Normal Era, Trust, Publicness, Religious Education, Sangsaeng Ethics

* **Corresponding to** Yeongj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n and Culture, Daejin University)
E-mail : eureka0710@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뉴노멀시대, 공공성회복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김영주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뉴노멀 시대,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신뢰할 수 없음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디지털이 인류가 선택한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특유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의 성직자의 이탈과 팬데믹에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공공성의 상실이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된 종교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세간에 회자는 단힌 종교는 종교가 스스로 선택한 셈이다. 모든 정보가 검색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드러난 성직자의 이탈과 팬데믹에 대처하는 종교의 모습 속에서 신뢰의 상실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고뇌의 시간이 주어진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다시 부각되는 점에 천착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신뢰와 책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종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신의 벽에 갇힌 종교가 이를 허물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이 남을 잘 되게 하라는 황금률을 기반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주제어 뉴노멀 시대, 신뢰, 공공성, 종교교육, 상생윤리

I. 들어가며

엔데믹을 이야기하고, 마스크 벗기가 논의되고 있다. 캠퍼스에, 홍대거리에 젊음이 넘쳐난다. 지금껏 눌러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느낌이다.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묻혀있던 걱정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젊음이 넘쳐나는데 종교에서 젊음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다음 세대들은 종교를 떠나는 걸까? 종교와 젊음의 점점 찾기는 요원하기만 한 걸까?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젊음과 마주하면서 잠시 묻혀있던 것들이 또 다시 터져 나온다.

종교가 위기이다. “종교의 공공성은 무엇이며, 지금의 한국종교에서 공공성은 존재하는가. 공공성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종교의 현실에서 종교의 공공성이 얼마나 울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종파를 막론하고 많은 종교인들이 한국종교의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풀리지 않는 실타래이다. 진단만 하고 비판만 했기 때문은 아닐까.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진보는 너무나 빠르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다. 말 그대로 급변하는 과학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현대문명 속에서의 정체되어 있는 듯한 한국 종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종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 하는 것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자칫하다가는 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종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팬데믹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었다. 뉴노멀 시대 한국 종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환경과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서브프라임모기지의 파장 이후 경제학계에 등장한 뉴노멀이라는 단어에 천착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기준’의 의미를 지니고 등장한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팬데믹 이후의 초연결사회로의 진행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뉴노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서 공공성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뉴노멀 시대, 종교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II. 뉴노멀과 디지털 문명

1. 팬데믹과 뉴노멀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전 세계 은행들과 기업의 파산을 야기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양산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계기가 되어 등장했던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진정한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새 기준’, ‘새 일상’이라는 한국어 표기도 등장했다.

팬데믹은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전까지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디지털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락다운(lockdown)의 일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디지털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사람은 수월한 일상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현상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아무튼 팬데믹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의 확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확장 속도가 20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소한 일상의 서비스까지 디지털화 되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디지털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갈수록 디지털 파워는 더해갈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디지털이 이제는 인류가 선택한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속도에서 찾을 수 있다. 몇 세기 전에는 정보의 속도와 말이 달리는 속도가 동일했다. 그 다음엔 배의 속도와 같았다. 다음에는 자동차, 다음에는 비행기의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오늘날의 정보는 소리와 전파의 속도를 넘어 광섬유를 통한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Rob, Kim trans., 2016: 240-241). 그리고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1분에 2억 4,000만 개의 이메일이 전송되고, 4만 7,000개의 앱이 다운로드되고, 6만 1,141시간의 오디오가 다운로드되고, 2,000만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고, 10만개의 트윗이 올라오며, 600만 개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조회되고, 200만 개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130만 개의 비디오가 조회된다. 정보 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대 산업이다. 전 세계 인구의 79퍼센트가 sns를 사용하며, 61퍼센트가 온라인 뉴스 레터를 사용하고, 51퍼센트가 블로그를 사용하고, 42퍼센트가 웹 세미나를 사용하고, 16퍼센트가 팟캐스트를 사용하고 있다(Rob, Kim trans., 2016: 243).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함을 추구한다. 디지털의 진화는 이를 충족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중요

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디지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이다. 해킹, 보이스 피싱, 딥페이크 기반의 디지털 범죄 등 디지털 안에서의 무신뢰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sns상의 사진과 글, 디지털 상에서의 뉴스, 기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사인지 등, 디지털 상에서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도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떠다니기 때문에 이를 취합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안에서의 위변조를 걸러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확장과 팽창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이 혁명이었다면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NFT(Non-Fungible Token)가 열풍인 이유이기도 하며, 블록체인기술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편리함에 더해 신뢰에 기반한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신뢰할 수 없음의 문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도처에 널려있다. 보다 명확히 말하면 신뢰해야만 한다고 교육되어진 제3자는 도처에 널려있다. 국민이기에 정부를,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인이기에 은행과 기업을, 종교인이기에 종교를, 학생이기에 교수자를, 후배이기에 선배들을, 구매자에게 판매자를.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UN을.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여겨졌던 시스템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간다. 특히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대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되었다는 UN을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신뢰해야만 한다고 교육되어져 왔고 관습적으로 믿어져 왔던 것들이,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것들이 무너져 가는 현상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은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인가.”라고.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신뢰해야만 했던 제3자에 의한 신뢰할 수 없음의 문제가 깔려있다. 정확히 말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3자의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신뢰는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사회에서는 정보의 전파 속도가 엄청나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것도 단순 리딩에서 영상시청으로 옮겨가고 있다. 영상의 정보가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정보의 영상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의 95%가 유튜브에 접속하며 1분마다 500시간이 넘는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개설된 채널은 2,400만개에,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이 유튜브에서 소비된다(Noh, Cho, & Kim, 2020: 81). 유튜브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이 아닌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튜브 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극적인 제목과 영

상으로 지탄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구글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견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종종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의 이분법을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밝히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유보했다(Noh, Cho, & Kim, 2020: 86). 유튜브와 크리에이티브가 신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로 영상을 만들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영상물을 통한 영도 확장을 즐기고 있다. 2018년 초등학교의 장래 희망 조사(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예인을 8위로 밀어내고 5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신뢰와 책임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신뢰는 ‘진실한가’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정보화사회, 디지털사회에서는 공유되는 정보가 진실한가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따라 신뢰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소수의 몇몇만이 독점하던 정보가, 그래서 그 정보의 진실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성되었던 신뢰 관계가 변화를 맞고 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 세계 어느 지역,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세상의 모든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혔을 정보들이, 특정인들만이 공유하던 정보들이, 충분히 왜곡 가능했던 정보들이 원자료 그대로 모두에게 공유되는 세상이기에 신뢰와 책임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팬데믹을 지나는 과정에서 디지털의 팽창을 확인하였다. 팬데믹은 뉴노멀이라는 문명사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을 삶의 표준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무신뢰에 기반한 문제들의 확산이 가져다 줄 피해들을 접하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상이라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맞게 된 뉴노멀 시대에서는 무너진 신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가 요청된다. 신뢰가 무너진 이유가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노멀은 신뢰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뉴노멀시대, 공공성의 위기와 한국종교

어떤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용어가 익숙해졌다는 반증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성은 적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 또한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관련되는 성질을 뜻한다(Hong, 2008: 4). 공공성에서 ‘공(公)’은 개인의 사적(私的)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집단, 씨족, 종족, 민족, 국가 등 공적 영역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공적 영역은 국가와 민족 단위에서 지구촌 전

체와 세계 시민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공(共)’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양한 구성원들 상호 간에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ark, 2014: 117). 공공성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종교에서의 공공성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종교인들의 공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확장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공공성 문제가 논의된 배경이다. 종교의 공공성은 종교라는 것이 공공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이다(Kim, 2021: 47).

‘종교’와 ‘공공성’의 연결은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과 함께 공적인 역할 담당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하다. 팬데믹 상황 속에 정치와 종교 간의 팽팽한 긴장을 겪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종교라는 점에서 정교분리의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 공적인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종교는 인간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온전히 사적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Chun, 2016: 197). “교회가 시민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교회의 중장기적 생존과 성장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Kim, 2010: 28-29 재인용)는 표현 또한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특히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종교 역시 공공성의 위기와 종교의 공적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염승준은 공공성의 위기와 관련해서 ‘현재의 공공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핵심요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회 각 분야가 이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Yeum, 2017: 9). 그렇다면 정교분리가 준수되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종교는 윤리의 준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히 사회적 자본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connections),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Yi, 2018: 144). 콜만은 사회적 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신뢰가 없는 조직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Yi, 2018: 147 재인용). 이렇게 본다면, 종교는 사회적 자본의 범주에서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결합관계가 결합되는 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종교기관이기 때문이다(Chun, 2016: 205) 그러나 앞서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았다. 종교가 신뢰에 기반한 윤리의 준거와 사회적 자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종교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적 역할의 준거를 제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종교는 신뢰할 수 없는 제3자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대검찰청의 2014-2018년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성직자(현재 ‘종교가’로 표기됨)가 저지른 범죄는 2014년 5천168건, 2015년 5천816건, 2016년 5천 582건, 2017년 5천 249건, 2018년 5천 260건에 이른다. 성직자 범죄는 다른 전문직군(의사·변호사·교수·언론인·예술인·기타)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Lee, 2020: 175). 대부분의 종교범죄는 집단적 배타성에 기인한다. 그래서인지 범죄의 유형도 사기, 폭행, 상해, 횡령, 성폭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이다.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종교가에 의한 강력범죄는 성폭력이 2014-2018년 평균 91.8%를 차지한다(Lee, 2020: 175).

성직자의 범죄(성폭력, 사기, 횡령 등)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불러온 것임에는 분명하다. 집착을 버리라고 설교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며, 특히나 집단적 배타성과 특유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우월적 지위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들이기에 사회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 당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 험난한 것만은 사실이다.

종교에 대한 신뢰추락은 비단 성직자 개인의 일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적어도 한국사회는 종교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종교는 한국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종교시설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사례 속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와 ‘타인을 이롭게 하라’는 황금률은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im, 2021: 46). ‘신천지 현상’과 일부 개신교계의 반(反) 방역 현상은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종교적 재난’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Shin, 2021: 21). ‘종교적 재난(religious disaster)’이란 종교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대량의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의미한다.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고(incident)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손실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사건(incident)에 속한다(Yoo, 2014: 106). 팬데믹 상황에서의 종교와 관련하여 법보 신문의 기사 ‘종교 연구자 9인이 본 코로나19 이후 한국종교와 불교’와 우리신학연구소가 진행한 ‘(좌담) 코로나 이후, 종교의 길을 묻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먼저 ‘종교 연구자 9인이 본 코로나19 이후 한국종교와 불교’에서 오강남은 “코로나 19를 물리치는데 종교에서 신봉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함에 따라 빌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기복신앙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김용표는 “인간의 생명과 사

회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경직된 교리와 교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부 종교인의 행태는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종교의 집단 이기심과 기복중심의 종교에 실망한 이들의 탈종교화 현상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원영상은 ‘신천지는 종교를 보는 대중의 비판적 시선에 불을 지폈다. 향후에도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종교가 관련된다면 건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다(Beopbo shinmoon, 2020.5.6.). ‘(좌담) 코로나 이후, 종교의 길을 묻다’에서 박문수는 “재난이나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드러나는데, 종교의 민낯도 드러났다.”고 하면서 종교의 공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으며, 유승무는 기성 종교들이 사명에 맞게 해왔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낯선 사람과 이방인에 대한 거리 두기, 혐오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상철은 서양의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는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religionless christianity)’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니즘(the messianic without messianism)’ 등 탈제도화한 교회에 대한 도전과 성찰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바, 한국 개신교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작은 틈새가 생겼다는 의견을 제시한다(Park et al., 2020: 11-30).

정부의 방역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지도자의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비협조와 종교의례의 진행은 종교를 소통 능력이 부족한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협조적인 종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단힌 종교’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Kim, 2021: 46). 팬데믹 상황에서 당연히 방역이 우선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反) 방역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였으며, 반방역이 팬데믹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이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10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05년 47,041,434명이던 전체 인구가 2015년 49,052,389명으로 200만 명이 늘어났음에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4,970,766명이었던 종교인은 2015년 조사에서는 21,533,674명으로 약 344만 명이 줄었다. 불구하고 종교인구가 오히려 더 줄어든 통계자료는 ‘단힌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종교의 현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Kim, 2021: 46).

천지일보의 ‘한국종교 30년 어떤 변화가’는 기획기사는 종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 주머니 털어 ‘헌금’낸 교인...배불리는 목회자.
2. 십일조는 교인의무? 헌금 강조하는 개신교회.
3. 신 가르침보다는 자기행복 찾는 교인 늘어.
4. 경전에 나온 ‘신·창조·심판’ 안 믿는다.
5. ‘교회·성당·사찰’ 거부하는 종교인 늘어,
6. 돈·권력 집착하는 무너진 성직자 늘어 ‘꼴머리’.

7. 신뢰 떨어진 종교계...‘종교 참뜻 찾으라’,
8. “‘종교인 본래의 뜻 벗어나’ 레드카드 든 국민들”(Cheonji ilbo, 2015.3.4.-2015.4.5.).

다소 과장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종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8번의 경우는 “맹목적 믿음·신앙 강요는 2030세대들의 탈종교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종교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로 마무리 짓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종교에서 이탈하고 있는 2030의 젊은 층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의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새로운 ‘믿음’ 찾아 나선 사람들’에서 인문학 공부·명상·요가 등을 찾아 제도권 종교가 아닌 곳에서 정신건강을 찾고 삶의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Kyunghyang shinmoon, 2015.3.23.). 아무튼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노멀을 대비해야 하는 종교계는 2015년에 던져졌던 시대적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2030에게 있어 종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 오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독선’, ‘위선’, 그리고 ‘재미없는 어떤 것’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다. 실제로 종교현장에 젊은 층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미래의 2030은 더 찾기 힘든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인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모습들도 보이곤 한다. 이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아무튼 이탈한 2030과 미래의 2030이 종교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성숙한 신앙을 담아내어야만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뉴노멀의 기준을 신뢰와 책임에 둔다면, 종교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상생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1. 종교교육의 대상과 범위

종교심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익혀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종교교육은 마음의 바탕이나 됴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이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종교교육은 바람직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기에 가정 및 학교와 종단 차원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종교교육의 대상에서 성직자는 제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인성교육이 ‘청소년이 문제’라는 관점을 전제로 인성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부재를 제공한 이들이 청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소년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 청소년들만 교육하면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이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시스템이, 그리고 기성세대가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성세대들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소년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종교교육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종교교육에서 성직자가 논의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인성교육에 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종교교육에서 논의의 대상은 종립학교의 학생과 개별 종단의 일반 신도들이었다.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성을 회복하고 도덕성 부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 마치 ‘닫힌 종교’를 향해가고 있는 종교의 제문제들이 ‘일반 신앙인들의 문제’이며, 이들에 대한 종교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게끔 하는 원인 제공자가 ‘종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교지도자들 또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나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종교에서는, 특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소수의 종교지도자들은 모든 정보를 그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키보드 한 번이면, 특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이전에는 숨길 수 있었던, 그리고 왜곡시킬 수 있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원자료 그대로 공개되는 세상이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는 신성한 곳,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겨지던 종교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소통 방식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세상과 함께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이 종교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앞으로의 종교는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종교인을 위한 종교보다는 인간을 위한 종교로의 거듭남(Kim, 2021: 75)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리고 팬데믹을 계기로 뉴노멀이 논의되면서 종교교육이 지향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팬데믹은 디지털 세상을 앞당겼으며, 초연결사회의 도래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된 초연결사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갈등상황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하였다.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면 위주의 종교 생활이 비대면 위주의 종교 생활로 변모하면서 종교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였다. 새로운 갈등상황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본다면 종교교육은 그 대상이 학생이 되었던 종교인이 되었던 간에 교육적이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대상 또한 종교인과 종립학교 학생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개별종교의 교리 교육이 아니라 종교성

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무튼 일반 국민에게까지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불신의 벽’의 허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열린 종교를 구현해 냄으로써 모두를 위한 종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종교계에 고뇌의 시간이 주어진 것임에는 분명하다.

2. 종교교육의 콘텐츠로서 상생윤리

뉴노멀 시대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책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종교인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을 잘 되게 한다.”¹⁾는 상생윤리는 신뢰와 책임이 중심이 되어 모든 관계성을 규정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은 ‘남을 잘 되게 하라’는 황금률을 기반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증산은 “망기부자무도 망기군자무도 망기사자무도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개병(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행록 5-38)라고 하였는데, 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유추해볼 수 있다.

증산은 천하가 병든 이유를 부모와 임금,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치와 도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보은의 도리를 저버림으로 인해 결국 천하가 병들었다는 것이다.

‘망기부자무도(忘其父者無道)’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림으로 인해 무도한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다. 부모의 은혜를, 임금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를 이라고 하여 일방적 작위만을 강조하는 식의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생이 일방적 작위가 아니라 상호교호작용임을 감안한다면 ‘망기부자’를 “부모의 은혜를 망각했다”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리를 망각했다”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망기부자무도’는 “부모의 도리를 망각하고 저버림으로 인해 무도한 세상이 되었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세상이 무도하게 된 데에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림’으로

1)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교법1-2).

인한 것과 ‘부모의 도리를 망각하고 저버림’으로 인한 것이 합쳐져서 발생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망기군자무도’와 ‘망기사자무도’ 또한 ‘임금에 대한 도리’와 ‘임금의 도리’가, ‘스승에 대한 도리’와 ‘스승의 도리’가 합쳐진 것이 되어야 한다. 선천이 ‘위’가 중심이 된 것이었다면, 후천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열(烈)이다. 앞서 논의한 “망기부자무도 망기군자무도 망기사자무도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개병(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에서 부자, 군신, 사제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 작위가 아니라 상호교호작용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던 바, 동일한 관점에서 부부의 관계 역시 부(夫)를 있게 하고, 부(婦)를 있게 한 근본에 대해 부(夫)의 도리를 다하고 부(婦)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마음을 다해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원군불군 원부불부 원사불사 유군무신기군하립 유부무자기부하립 유사무학기사하립(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공사3-40)이다. 자식이 없으면 어찌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스승이 되고자 하나 제자가 없으면 어찌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와 연결시켜보면 부모와 임금과 스승의 은혜는 영수불망해야 하지만 부모와 임금과 스승 또한 그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군신·사제 관계는 일방적 작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 그리고 존중이 담보될 때, 온전한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있게 해 준 신하에 대해 군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며,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스승은 스승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하는 신하되게 해 준 임금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Kim, 2014: 113).

이상을 정리해보면 망기부자무도, 망기군자무도, 망기사자무도는 자식과 신하와 제자의 입장에서 부모와 임금과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부모와 임금과 스승의 입장에서 부모와 임금과 스승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있게 해 준 존재에 대해 보은하고 상생하자는 것이다. 중산이 살았던 시기는 봉건적 질서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특히 군신간의 관계는 일방적 작위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였다. “세상에 충, 효, 열이 없다.”라고 한 것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행해져야 하는 도리가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사회의 모든 관계는 대대적 관계에 있다. 상호 교호작용을 통한 상생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세상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며,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호 교호작용보다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독립성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독립성끼리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만연해 있는 것이 인간인 셈이다. 성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과오를 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

과 성찰은 이루어져야 한다. 우당은 “잘못의 발견은 위대한 지식이 되니 상급임원은 위세로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 난법난도(亂法亂道)의 시작이 되어 상대의 반감을 유발하리라.”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 Jinrihoe, 2012: 80)고 하여 과오를 위력으로 왜곡하려 하지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을 훈시하고 있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상호간에 신뢰는 형성되는 것이며, 무너졌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인하였다. ‘굿바이 코로나, 반갑다 뉴노멀’²⁾이라는 문장 속 뉴노멀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디지털이 인류가 선택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등장하였던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신뢰할 수 없음의 문제를 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 등 기관과 기관, 기관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신뢰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했듯이 외침은 외침으로 끝이 났고, 신뢰 없음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그래서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그리고 종교에도.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면서 살고 있다. 수천 년 동안 평등과 정의, 공정을 이야기 한 종교에서 마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또 다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신뢰의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과 결합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확인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다. 기업이나 공인의 경우, 한 번의 거짓, 위선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대중은 신뢰와 관련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다.

일부 성직자의 일탈과 팬데믹을 대처하는 종교를 보면서 탈종교를 이야기한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첨단의 과학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교는 농경시대의 감성을 이야기하며, 농경시대에 탄생한 종교적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종교는 그래도

2) ‘굿바이 코로나, 반갑다 뉴노멀’은 대전대학교 창의인재미래대학이 주관한 교양교육 페스티벌에서의 주제이다.

된다는 식의 안일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굿바이 코로나, 반갑다 뉴노멀’은 종교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팬데믹 속 디지털을 겪으면서, 디지털이 인류가 선택한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종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에서 그동안 상실하였던 공공성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디지털 인류인 MZ세대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종교가 인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면 새로운 문명과 이를 만들어나가는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문명 또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서로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중의 마음을 얻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뢰회복, 신뢰형성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고, 소통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의 교리에 내재되어 있는 “남을 잘 되게 한다.”라는 상생윤리는 공감하고 소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 뉴노멀시대의 황금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opbo shinmoon(<http://www.beopbo.com>), 2020.5.6.
- Cheonji ilbo(<http://www.newscj>), 2015.3.4.-2015.4.5.
- Chun, M. S. (2016). Political Development and the Public Role of Religion: A Critical Approach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ligion - Based Civic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56, 191-218.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ng, S. T. (2008). Civil Publicness an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13, 72-97.
- Kim, S. G. (2010).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A Sociological Observation.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 7-36.
- Kim, Y. J. (2016). Bioethics and Religious education on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5, 103-125.
- Kim, Y. J. (2016). Healing and Harmony in Daesoonjinrihoi.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70, 321-351.

- Kim, Y. J. (2021). The Religious Publicness and the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e in the Pandemic Er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6, 43-58.
- Kyunghyang shinmoon(<http://www.khan.co.kr>), 2015.3.23
- Lee, B. H. (2020). An Analysis on the Religion-related Crimes in Korea: reality and psychology, *Korean Police Studies*, 19, 167-188.
- Park, K. S. (2014). Gaebyeok Thought and Publicness in New Korean Religions. *Korea Reformed Theology*, 26, 216-250.
- Park, M. S., Yoo, S. M., Lee, S. C., Lee, M. Y. (2020). Post Covid, Ask the way of Religion. *Catholic Review*, 27, 10-30.
- Rob M. LEVERAGE. 김유미 옮김(2019). 레버리지. 서울: 다산북스.
- Shin, K. C. (2021). Disaster and Religion: Epidemics, COVID-19 and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1(2), 9-31.
- Yeum, S. J. (2017). Study 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religious publicnes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72, 7-36.
- Yi, Y. J. (2018). A Critical Research on the Concept of Undifferentiated Social Capital - Focusing on Putnam's Concept of Social Capital.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24(2), 143-166.
- Yoo, K. S. (2014). Information Science of Religion: Rethinking Religious Disasters in Terms of Religious Market Theor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4(4), 103-136.
- 노가영 · 조형석 · 김정현 (2020). 콘텐츠가 전부다. 서울: 미래의 창. (Translated in English)
- Noh, G. Y., Cho, H. S., Kim, J. H. (2020). *Contents is Everything*. Seoul: Miraechang.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 Jinrihoe (2010). *The Canonical Scripture*. Yeosu: Daesoonjinrihoe Press.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2).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 Jinrihoe.(2010). *The Guiding Compass of Daesoon*. Yeosu: daesoonjinrihoe Press.